Weekly Newsletter

KITA 도쿄지부

5월
제3호

2021年5月17日

Vol. 6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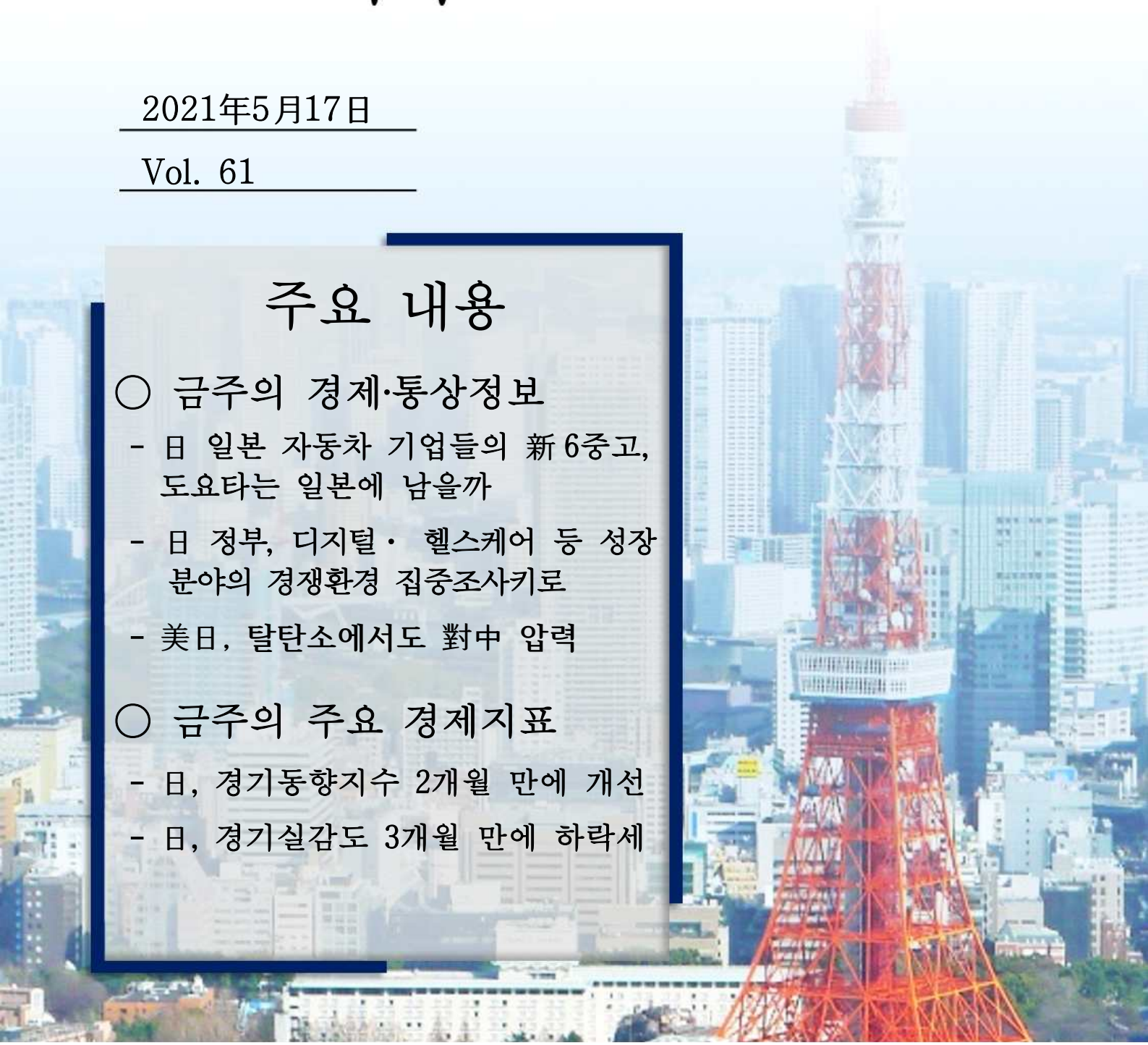
주요 내용

○ 금주의 경제·통상정보

- 日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新 6중고, 도요타는 일본에 남을까
- 日 정부, 디지털· 헬스케어 등 성장 분야의 경쟁환경 집중조사키로
- 美日, 탈탄소에서도 對中 압력

○ 금주의 주요 경제지표

- 日, 경기동향지수 2개월 만에 개선
- 日, 경기실감도 3개월 만에 하락세



KITA TOKYO
〒100−0014 東京都 千代田区 永田町 2−13−10 プルデンシャルタワー3階
Prudential Tower 3F, 2−13−10, Nagatacho, Chiyoda−ku, Tokyo 100−0014, JAPAN
TEL : 81−3−6826−5170 / FAX : 81−3−6826−5171/5172
Copyright © KITA All right reserved.

금주의 경제·통상정보

1 日 자동차 기업들의 新 6중고, 도요타는 일본에 남을까

□ 일본 자동차 기업들을 덮치는 新 6중고

○ 일본 자동차 사업에 방해가 되는 6가지 문제

- 나카니시 자동차산업 리서치 대표는 최근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방해가 되는 6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함

< 新 6중고 >

① 서플라이 체인(공급망), ② 에너지 믹스, ③ 탈탄소,
④ 자원, ⑤ ESG(환경·사회·기업 통치), ⑥무역 룰

-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은 회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자동차 공업회의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이나 脫 엔진으로 기운 일본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냄

- 민·관의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,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후에도 볼 수 있었음. 높은 법인세율이나 에너지 코스트, 엔고, 무역협정의 지연 등을 배경으로 산업계로부터 분출한 것이 「6중고」의 논의였음

□ 日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생산 이전

○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일본 내에서 전기자동차(EV, Electric Vehicle)를 생산했을 경우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

- EV 구입의 미국 보조금은 총액 1천억 달러에 달함. 연간 1400만대의 미국 신차판매 시장 가운데 20%는 EV로 하는 것을 미국이 목표했다고 가정하면 5년간에 걸쳐 1대 당 약 7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됨

○ 따라서 일본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틀림없이 미국으로의 생산 이전을 생각할 수 밖에 없어짐. 2011년의 6중고에서는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해외로 생산을 옮기는 「어웨이 전략」을 채택한 한편, 도요타자동차가 일본 내에서의 생산을 유지하는 「홈 전략」을 지켰음. 그러나 이번은 도요타도 미국으로 생산을 옮길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

□ 세계적인 탈탄소, 고용, 투자의 쟁탈전

○ 현재 전세계적으로 탈탄소를 통한 산업의 게임 체인지, 고용과 투자의 쟁탈전이 진행되고 있음

- 미국에서처럼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일본 기업의 생산 시프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. 예를 들어 도요타가 일본과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주력 소형차 「야리스」의 주력 생산을 프랑스로 전환하는 상황도 예상됨
- 전기자동차(EV)는 머지않아 자동차 산업의 중심 기술이 될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판매가 과반이 되는 것은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
- 엔화 약세와 세율 조정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10년 전의 6중고와 달리 이번의 新 6중고는 일본에게 더욱 심각할 수 있음

상세전문(kita.net으로 이동)

2 日 정부, 디지털· 헬스케어 등 성장분야의 경쟁환경 집중조사키로

□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디지털, 헬스케어, 에너지 등 성장분야의 경쟁환경을 집중 조사키로 하고, 전문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할 예정

○ 전문팀에서는 이런 성장분야에서 소수의 기업에 의한 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관행 등을 조사해서, 문제가 있다면 감독관청과 사업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

□ 최근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로 인한 경영악화로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거대기업의 M&A(합병·매수)가 진행되어 과점 발생 가능성 확대

○ 코르나바이러스 감염방지 대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헬스케어 산업이 과점 경향 심화

- 비영리단체인 미반트러스트연구소(Antitrust Institute)는 제약분야에서 존슨앤존슨, 로쉬, 화이자 등이 세계시장의 40%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

○ 디지털 분야에서도 거대 IT기업의 M&A가 지속, 특히 음성기술과 의료 디지털화 분야에서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음성인식 기술 대기업인 미국 뉴언스 커뮤니케이션즈(Nuance Communications)를 매수

<성장분야의 경쟁환경을 각국 당국이 주시하고 있음>

디지털	· 공정위가 디지털 시장의 과점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, 지침을 공표 · 미연방거래위원회(FTC)는 테크분야의 경쟁상태를 조사하는 TF를 신설
헬스케어	· FTC가 유럽 각국과 공동으로 제약분야의 M&A 심사의 개선에 착수
금 융	· 공정위가 은행간 송금시스템의 폐쇄성과 비싼 이체 수수료를 문제시. 업계가 대응하는 사태로

□ 이번 공정위의 전문팀 신설은 과점의 조짐을 사전에 밝혀내고, 담합과 같은 사건 조사와 경쟁환경 유지를 위한 제언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의미

○ 일본 공정위는 과거에도 정기적으로 품목과 서비스 별로 일부의 기업이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「집중도」를 조사하였지만 2015년 이후 중단

상세전문(kita.net으로 이동)

3 美日, 탈탄소에서도 對中 압력

□ 미일 양국정부는 중국에게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에 있어 선진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, 안전보장과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탈탄소 분야도 새로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움

○ 우선 양국정부는 중국이 국제조약 체계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아 우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꿀 계획, 이 문제를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11월 제26회 UN기후변동체계조약체약국회의(COP26)에서 제기할 예정

○ 중국은 국내총생산(GDP)이 미국에 이어 제2위이며 세계 최대의 온난화 가스 배출국가로서 이산화탄소(CO2) 배출량이 전세계 28%이상 차지, 온난화 대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

□ 지난 4월에 열린 기후변동서미트에서 미일중 등은 2030년 온난화가스 삭감목표를 발표

○ 미국은 중국에게 새로운 목표 제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2030년까지 피크를 거쳐 2060년까지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종래방침을 설명하는데 그침.

□ 미일은 구체적인 대책에서 조정에 돌입, 개도국 원조를 중국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검토

○ G7에서 의장인 영국수상도 개도국 지원 문제를 의제로 할 의도를 보였고, EU도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세에 전향적

○ 중국은 선진국보다 늦게 경제가 발전되었으며,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온난화 대책을 취하게 되면 경제발전에 족쇄가 되어 불공평하다고 주장

[「개도국」 대우이면 혜택이 많음]		[「선진국」이 되면 .....]
· 다국간 체제에서도 지원을 받는 편이 됨. · 타국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의무가 아님. · 자국 경제발전으로 자금을 돌릴 수 있음.	⇨	· 개도국에 대한 지원금 갹출 등이 의무임. · 온난화 가스 삭감 목표의 달성이 요구됨. · 국내대책 강화로 지출이 늘어남.

상세전문(kita.net으로 이동)

금주의 주요 경제지표

1 日, 3월 경기동향지수 2개월 만에 개선

□ 2021년 3월 경기동향지수, 2개월 만에 개선

○ 내각부가 12일 발표한 2021년 3월 경기동향지수(2015년=100, 속보치)는 전달에 비해 3.2 포인트 상승한 93.1이 되어 **2개월 만에 개선을 보임**

* 89.2(`20년 12월)→91.6(`21년 1월)→89.9(2월)→93.1(3월)

○ 지난달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난 강진에 의한 부품 공급 중단과 반도체 부족 등으로 자동차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며 지수 하락에 크게 기여하였으나, 3월에는 의류와 같은 소비재의 판매 호조, 자동차 수출과 생산이 증가한 것 등이 개선에 영향을 주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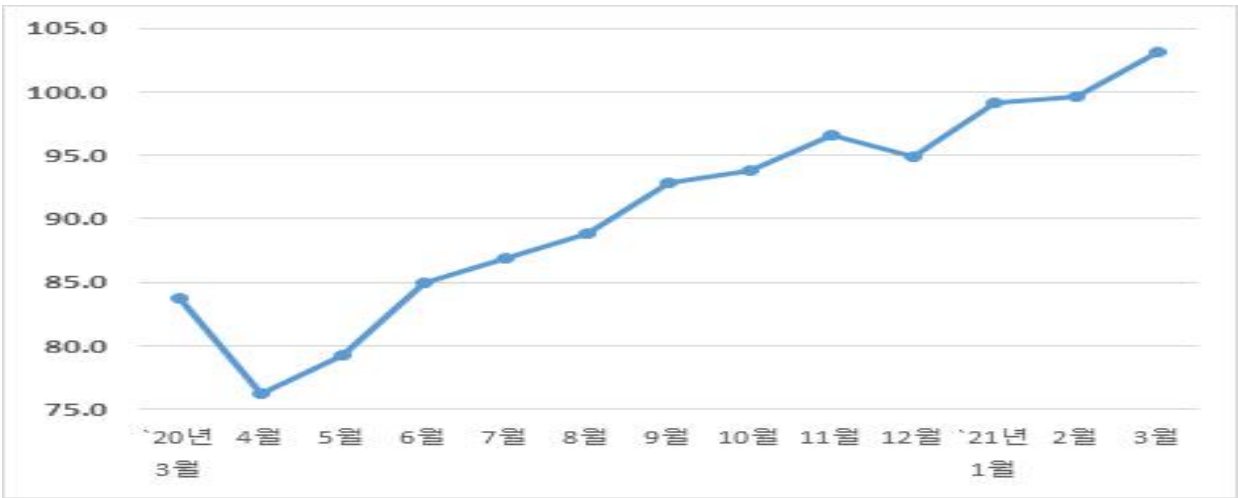
○ 한편, 일본정부는 현재의 경기 기조판단을 기존의 "상승세로 변화"에서 "개선"으로 상향 수정함

□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3.5포인트 상승

○ 경기동향 지수와 함께 **수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"경기선행지수"도 3.5포인트 상승**, 103.2를 기록함

<월별 경기선행지수(CI) 추이>

(2015년=100)



자료원: 내각부

2 日, 경기 실감도 3개월 만에 하락세

□ 2021년 4월 경기워처 조사현황판단, 3개월 만에 하락세

○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경기의 실감도를 묻는 일본 내각부의 경기워처 조사현황판단DI(景気ウオッチャー調査-現状判断ＤＩ) 수치는 39.1이 되어 **3개월 만에 하락세**를 보였음

-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계속 확대되며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 선언이 다시 발령되어 소매나 음식 관련이 침체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

○ 지난 3월에는 수도권에 발령되고 있던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일본 정부가 4월 25일부터 도쿄도, 오사카, 쿄토, 효고 등에 선언을 발령하면서부터 4월의 수치가 악화되었음

- 가계 동향과 관련해서는, “긴급사태 선언에 의한 휴업 요청 때문에, 4월 25일 이후는 식품과 화장품만 판매되고 있다”(백화점), “주류의 제공 자숙, 단축 영업으로 예약도 현장 손님도 격감하고 있다”(레스토랑) 등의 코멘트가 있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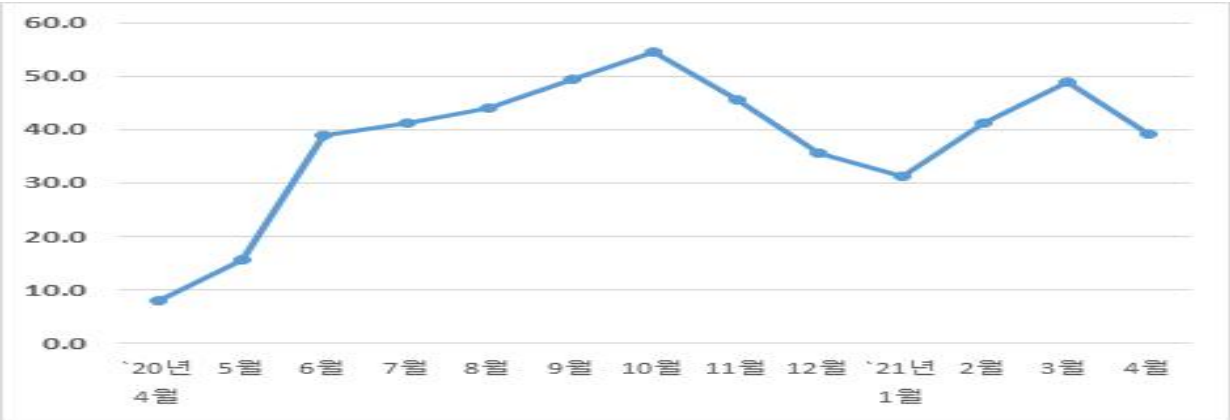
- 기업 동향 관련해서는, “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, 일반 점포나 음식점의 빈 곳이 증가하고 있다”(부동산업), “전체적으로 많이 하강하는 국면이라는 느낌은 없다. 매상도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오름세가 되고 있다”(건설업)라는 의견들이 있어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

○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장래에 대한 코멘트로서는, “전체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, 앞으로도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”(택시), “지금부터 여름을 향해서, 에어콘, 냉장고 등의 판매를 기대할 수 있다”(가전 소매점) 등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상황임

○ 일본정부는 현재의 현황판단을 **“신형 코로나 감염에 의한 영향이 남는 가운데 회복세가 약함”으로 하향 수정함**

<월별 경기워처조사, 현황판단(DI) 추이>

(2015년=100)



자료원: 내각부

. 끝.